

雪橋 安錫傲의 對日認識과 「姜沆傳」

윤 지 훈 *

<目次>

- | | |
|------------------------|-----------------------|
| I. 序論 | 2. 疏筭 挿入을 통한 事實性의 強化 |
| II. 著述動機와 對日認識 | 3. 有機的 構成을 통한 主題의 集中化 |
| III. 「姜沆傳」의 敘述構造와 그 特徵 | IV. 結論 |
| 1. 事迹 中心의 簡略한 傳記 敘述 | |

<국문 초록>

본고는 안석경이 저술한 「姜沆傳」의 특징과 저술배경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강항전」은 안석경이 강항의 『看羊錄』을 읽고, 이를 생략, 통합, 재정리하여 ‘傳’으로 재구성한 것인데, 이는 그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독서 체험이 어우러져 탄생한 결과물이며, 또한 그 속에는 시대적 위기위식에 대응하려는 조선후기 지식인으로써의 고뇌가 투영되어 있어 주목된다. 「강항전」은 여느 인물전과 달리 그 구성이 일본의 정세를 밝히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는 『간양록』의 기록을 가공하여 강항의 전기를 간략히 기술한 뒤에, 소차의 형식을 빌려 일본 정세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주제별로 묶어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강항전」은 비록 ‘전’이란 장르적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문예성을 질게 내포한 작품이라기보다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조선이 대응해야 할 방안을 모색한 실천문학으로써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주제어】 安錫傲, 姜沆傳, 看羊錄, 對日認識, 敘述構造

* 조선대학교 강사 / singlesw@skku.edu

I. 序論

‘傳’은 주지하듯이 司馬遷의 『史記』 列傳에서 비롯된 산문 양식의 하나로, 한 인물의 傳記를 적어서 후세에 전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그래서 ‘전’은 언제나 역사적 사실에 의거하여 기록하려는 ‘據事直筆’의 태도를 중시한다.¹⁾ 하지만 그것이 특정 작가의 손을 통해 창작되어지는 이상, 그 속에는 작가의 일정한 입전의식이 투영되기 마련이다. ‘전’이 行狀과 달리 인물의 모든 행적을 나열하지 않고, 해당 인물의 像을 부각시키는 데 필요한 것만을 정선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 주제를 구현하려는 것도 다른 아닌 작가의 입전의식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래서 간혹 같은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지어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작가에 따라 서술 내용에 차이가 보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項羽에 관한 『史記』와 『漢書』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들은 각각 司馬遷과 班固의 견해차로 인해 한쪽은 本紀에서 항우에 관한 전기적 사실을 다루고 있으며, 다른 한쪽은 列傳에 편입시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문장 표현에 있어서도 부분적이거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서』가 『사기』의 서술을 개작하는 과정에서 반고가 의도적으로 산삭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의 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떠한 의도로 창작되었으며, 작품에 어떠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은 언제나 작가의 입전의식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결과 다른 산문 양식에 비해 비교적 改作을 향해 열려있는 장르라고 할 수 있다.²⁾

본고는 이러한 ‘전’의 장르적 특성에 주목하여 雪橋 安錫傲(1718-1774)

1) 陳必祥 著·沈慶昊 譯, 『한문문체론』, 이회, 1995, pp.87-103 참조.

2)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pp.19-48 참조.

의 「姜沆傳」이란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후술하겠지만 「강항전」은 안석경이 姜沆(1567-1618)의 『看羊錄』을 읽고 남다른 감회를 느껴 입전한 작품으로, 우선 분량 면에서 만여 자에 달할 정도로 여타 ‘전’에 비해 그 편폭이 길뿐 아니라 『간양록』의 기록을 개작하는 과정에서 그의 작가의식이 작품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 앞서 살펴본 ‘전’의 특징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자료이다.³⁾ 또한 「강항전」은 거개의 인물전이 입전 인물의 성격과 일화에 초점을 맞춰 서술되고 있는 것과 달리, 『간양록』에 소개된 일본의 역사, 지리, 풍토, 습속 등에 관한 기록을 통해 당시 일본 정세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료로서의 가치를 아울러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강항전」의 이러한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서 먼저 안석경이 「강항전」을 짓게 된 저술동기와 작가의식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작품을 분석하여 그가 『간양록』을 개작하면서 어떠한 형태로 작가의식을 투영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춰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후기 다양한 형태로 분화·발전한 ‘傳’문학 양식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II. 著述動機와 對日認識

1592년 조선을 무대로 발발한 壬辰倭亂은 조선은 물론 동아시아 전반의 지각변동을 초래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중국과 일본은 각각 왕조와 정권이 교체되었거니와 조선의 경우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모든 방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조선은 7년 동안 전국토가 전장이 되어 전란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물질적 피해뿐 아

3) 『간양록』은 강항의 포로체험을 기록한 實記이므로 엄밀히 말해 장르적으로 ‘전’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간양록』이 역사적 사실과 개인의 체험을 기록한 서사체 산문이란 점에서 ‘전’과 일정부분 친연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안석경에 의해 ‘전’으로 재구성되어진 바, ‘전’의 개작화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상정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라 정신적으로도 그 피해가 상당했다.⁴⁾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이들은 일본을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막연한 이웃나라로써만 바라보지 않고 조선의 운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라로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는 조선 전기에 비해 일본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불행히도 이 당시 형성된 對日認識은 지극히 부정적이었다. 이들은 일본을 철저한 華夷論에 입각하여 夷狄으로 간주하고 일본을 ‘鯨鯢’, ‘介鱗’, ‘犬羊’으로, 적장인 豊臣秀吉을 ‘倭酋’로 표현하는 등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감정적 적개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거니와 임진왜란과 같은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일본의 군사적·정치적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보다 정확한 지식을 확보하려고 했다.⁵⁾

또한, 일본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태도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점차 고정화되어 조선 지식인들에게 일본하면 으레 원수의 나라로 여기게 만들었다. 안석경이 「강항전」을 저술하게 된 동기도 이러한 시대사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아! 萬曆 壬辰年에 왜구가 조선을 짓밟은 것을 조선의 사람이라면 백년이 지났다하더라도 잊을 수 있겠는가? 내가 姜沆의 「倭中錄」을 읽고서 그가 포로로 잡혀 적중에서 고초를 겪고 있었음에도 적의 요처를 정탐하여 우리나라에 상세히 아뢰어서 득실을 밝히고 새로운 계책을 진술했던 것을 훌륭하게 여겼다. 생각해 보건대 당시 조정에는 별다른 계책이 없었으니, 능히 그가 아뢴 것을 의거해서 참고하여 間諜를 놓았다면 큰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으니 아쉽도다. 치욕을 참고 아픔을 억누르면서 왜적과 화친을 맺어 깊이 취하고 즐거워하면서 태만하고 적막히 지낸지가 이에 백년이 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백성

4)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참조.

5) 하우봉, 「17세기 지식인의 일본관」, 『동아연구』 17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9;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혜안, 2006 참조.

들의 마음속에는 쌓인 怨毒이 울연히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았으니, 天道와 氣化를 헤아려보건대 장차 반드시 왜구에게 보복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즉 비록 시대가 변하고 정세가 바뀌어서 고금이 판이하게 달라졌지만 姜沆이 정당한 것은 요컨대 아직도 근거할만한 것이 있으며, (승정원에) 나아가서 아된 것도 취할만한 부분이 있으니, 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러한 까닭에 상세히 밝혀 姜沆을 위해 전을 짓노라.⁶⁾

이 글은 「강항전」의 시작부분이다. 「강항전」의 전체 구성으로 봤을 때 序文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이 「강항전」을 저술하게 된 동기를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그가 「강항전」을 짓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그의 부정적 대일인식과 『간양록』에 관한 독서 체험이 그것이다. 안석경은 평소 ‘尊王攘夷’의 華夷論的 가치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그는 이를 위해서 당시 조선의 문제를 날카로운 시각에서 고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 조선을 강력한 국가로 탈바꿈시키려고 하였다.⁷⁾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조선에 무력을 행사한 문화적으로 미개한 민족일 뿐 아니라 유교의 禮義도 모르는 ‘夷狄’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위 글에서 강한 어조로 일본에 대한 분노를 숨김없이 표출하며 임진왜란의 치욕을 되갚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 것이나 「강항전」의 論贊部에서 “秀吉·清正·行長·義智·義弘·政宗·輝元·玄

6) 安錫傲, 『雪橋集』上, 「姜沆傳」 “嗚呼. 萬曆壬辰, 倭寇之燔烙朝鮮者, 朝鮮之人, 百年其可忘耶. 余讀姜沆倭中錄, 偉其在俘陷之困, 而能刺取賊要, 詳奏本朝, 指陳遺失, 進其新謀. 顧當時朝廷無大策, 不能據此奏, 而參用間諜以有大舉, 惜哉. 忍辱抑痛, 與倭賊和好, 酣豢宴安, 因循寂寞, 蓋百年於此矣. 然百萬生靈, 積其怨毒, 鬱然不少衰, 擦以天道, 度以氣化, 將必有報倭之日, 則雖時移勢改, 古今判異, 而姜沆之所刺取者, 要尚有可據, 所進奏者, 要尚有可採, 嗟乎. 寧可忽歟. 余故詳之, 而爲姜沆立傳.”

7) 윤지훈, 「삼교 안석경의 인물론과 북벌에 대한 인식」, 『한문교육연구』27,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참조.

蘇 등을 취하여 시체를 戮屍하고 군주를 바꾸고 정사를 개혁하고 풍속을 바꾸고 백성을 다스려서 우리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다면 또한 우리의 백년의 울분을 풀 수 있으리라”⁸⁾라고 언급한 것들이 그의 부정적인 대일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강항은 1593년 丁酉再亂 때 分戶曹 李光庭의 종사관으로 군량 공급의 일을 맡았다가 그해 9월 영광 앞 바다에서 왜장 藤堂高虎의 수군에게 사로잡혀 2년 8개월 간 일본 각지에 억류되었다가 돌아온 인물이다. 그리고 그가 남긴 『간양록』은 그 자신이 일본에서 被擄로 있으면서 豐臣秀吉 사후의 일본의 동향 및 군대의 형세와 지휘관의 면모, 기타 輿地, 풍속 등을 치밀하게 조사하는 한편, 그곳 승려들과 일부러 가까이 지내면서 일본의 정황을 알아내고 그들 官府의 圖書까지도 빼내어 보는 등 그의 ‘애국적인 투쟁활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저작이다.⁹⁾ 따라서 안석경은 자신의 對日認識과 동일한 성향을 지닌 강항의 사적을 읽으면서 강항이란 인물에 깊이 매료되었으며, 『간양록』 소재 기록들의 현재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재정리하여 自己慰安의 계기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가 한 시대의 지식인으로써 자임하며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실현하려 했던 점도 「강항전」의 저술에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 안석경이 살던 시대는 임진왜란이 종식되고 100여 년이 흐른 뒤였다. 그래서인지 이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점차 약화되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 측의 동향도 심상치 않았는데, 1763년에서 1764년까지 2년에 걸쳐 이루어진 癸未使行的 경우만을 살펴보았을 때, 都訓導 崔天宗이 살해되어 양국 간에 커다란 외교적 이슈가 되었거니와 통신사를 대하는 일본인들의 태도도 예전과 달리 도발적인 모습으로 보이기도

8) 安錫徹, 『雪橋集』上, 「姜沆傳」 “獨發取秀吉清正行長義智義弘政宗輝元玄蘇等, 戮其屍, 更其主, 改其政, 易其俗, 靖其民, 而使服于我, 則亦足以平我百世之憤矣.”

9) 임형택, 「姜睡隱과 그의 著作」, 『坡山及門諸賢集』, 아세아문화사, 1982 참조.

했다.¹⁰⁾ 그러므로 임진왜란이라는 국치를 한 차례 경험했던 조선의 지식인으로써는 일본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안석경은 일찍이 위기적 상황에서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과 삶의 자세에 대해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 가운데서 『삼교만록』에 수록된 기록이 임진왜란과 관련되어 있어 눈길을 끄는데, 잠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 때 왜구가 鳥嶺을 넘어 서울로 진격하자 당시 임금이었다던 宣祖는 도성을 버리고 서쪽으로 피난을 가려고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선조는 일국의 왕으로써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기에 군신들에게 명하여 市井에 은둔해 있던 학자들을 불러서 해결책을 묻게 되었다. 그러나 선조의 기대와는 달리 돌아오는 것은 다만 ‘덕을 닦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莫如修德]’란 공허한 대답뿐이었다. 그래서 안석경은 이 일화를 소개한 후, 당시 지식인이라 자처하던 이들의 무능력함을 “아! 편협한 유생과 졸렬한 선비들은 책을 읽어 체득한 것이 다만 心身 사이에만 있을 뿐, 일찍이 경제나 군대의 일에 같은 것에는 뜻을 두지 않았으니, 緩急의 사이에 처하여 갑작스런 질문을 받고서 계책을 분명히 말할 수 없음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며 통렬히 비판하였다.¹¹⁾ 이는 그가 역사적 전환기 속에서 필요한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고, 空理空論이 아니라 실용적 학문을 추구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그는 급변해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지식인으로써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것이 『간양록』을 토대로 일본의 정세를 상세히 기술한 「강항전」을 지음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

10)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신로사, 「元重擧의 『和國志』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교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구지현, 『계미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서, 2006 등이 많은 참고가 된다.

11) 安錫傲, 『雪橋別集』, 「雪橋漫錄」 “世言, 萬曆壬辰倭寇之踰鳥嶺也, 宣廟欲棄都而西巡, 乃御端門, 而詢于群臣, 命召儒學之士, 隱於城市者, 而使獻策, 其人伏地而對曰: ‘莫如修德.’ 宣廟命擗而退之, 至今爲笑端. 嗟乎. 拘儒拙士, 讀書體認, 只在心身之間, 而未嘗留意於經濟軍旅之務, 則當緩急之際, 承倉卒之間, 不能有所指陳擘畫, 固也.”

키게 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안석경의 「강항전」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간양록』이란 작품의 독서 체험이 만나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탄생된 결과물로서, 그 속에는 시대적 위기의식에 대응하려는 조선 후기 한 지식인의 고뇌가 투영되어 있어 주목된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그의 이러한 작가의식이 실제 작품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Ⅲ. 「姜沆傳」의 敍述構造와 그 特徵

「강항전」은 안석경이 강항의 『간양록』을 읽고, 이를 생략, 통합, 재정리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傳’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강항전」은 강항이란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인물의 성격이나 내면심리에 대한 묘사보다는 주로 『간양록』 소재 기록 가운데 일본의 정세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들로 채워져 있다. 또한 문장표현도 강항의 傳記가 서술된 도입부와 결말부를 제외하면 대체로 『간양록』의 문장을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강항전」을 문예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성과에 대해 논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따라서 본고는 비교적 안석경의 작가의식이 투영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강항전」의 서술구조를 중심으로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간양록』을 재구성하였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에 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事迹 中心의 簡略한 傳記 敍述

일반적으로 ‘전’은 작가가 입전인물의 생애 가운데서 관심이 가는 특정 사건이나 일화를 통해 그의 생평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래서 ‘전’에는 언제나 입전인물의 전기적 사실이 삽입되어 있다. 강항의

일생을 다룬 안석경의 「강항전」도 예외는 아니다. 안석경은 「강항전」의 도입부와 결말부에서 강항이 被擄가 돼서 「賊中封疏」를 올리기까지의 경위와 포로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의 생활상 등 강항의 일생 중에서 특징적 사실들을 중심으로 그의 전기를 서술하고 있다.

姜沆은 湖南 사람이다. 文科에 등과하여 벼슬이 刑曹佐郎에 이르렀다. 萬曆 丁酉年에 휴가를 얻어 부모님을 뵈러 호남으로 내려왔다. 그 해 여름에 명나라 장수 楊元이 서울로부터 왜병을 방어할 군사 삼천 명을 이끌고 남하하였는데, 分司戶曹인 參判 李光庭이 군량미를 운송할 책임을 맡아서 격문을 보내 강항을 보좌역으로 삼았다. 군량미가 이미 수집되었는데 때마침 적이 남원을 함락한지라 양원이 달아나고 이광정도 떠나가 버렸다. 그러자 강항은 金尙寯과 함께 격문을 띄워 의병을 모아 수백 명을 얻었지만 얼마 뒤 모두 흩어져 버렸다. 강항은 이에 집으로 돌아가 배에 올라 난리를 피하려고 하다가 李舜臣이 水軍統制使로 새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에게 가서 귀속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공이 잘못하여 강항 부자는 서로 어긋나 헤어지게 되었으며 게다가 적진에 빠지게 되었다.¹²⁾

위 글은 안석경이 정유재란 때 강항의 활약상과 일본인들에게 被擄되기까지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기술한 부분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위 글을 『간양록』과 비교하며 꼼꼼히 읽어보았을 때, 안석경이 『간양록』에서 강항의 전기적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선별하여 재가공했음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¹³⁾ 『간양록』에서 위 글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면 그

12) 安錫傲, 『雪橋集』上, 「姜沆傳」 “姜沆者, 湖南人. 登文科, 仕爲刑曹佐郎. 萬曆 丁酉春, 受暇省親, 歸湖南. 夏天將楊元, 自京師領防倭兵三千南下, 分司戶曹 參判李光庭督運糧餉, 檄沆爲郎, 糧餉既集, 而賊陷南原, 楊元走, 李光庭亦去. 沆與金尙寯, 檄募義兵, 得數百人, 而俄盡散, 沆乃還家, 航海逃亂, 聞李舜臣, 以水軍統制新到, 方謀往屬, 而爲梢工所誤, 沆父子相違, 而陷於賊所.”

13) 『간양록』은 序跋文과 「倭國地圖」를 제외하고 「賊中封疏」, 「賊中聞見錄」, 「告俘人檄」, 「詣承政院啓辭」, 「涉亂事迹」 등 총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내용은 「적중봉소」에는 강항이 被擄된 경위와 당시 심경에 대한 묘사를 비롯하여 그가 견문한 일본의 역사, 지리, 관직제도, 군사제도, 임진왜

가 「賊中封疏」의 기록을 참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적중봉소」의 “소신이 지난 정유년에 分戶曹 參判 李光庭의 郎廳으로서 總兵 楊鎬의 군량 운반을 湖南에서 독려하였습니다. 군량이 수집되었으나, 적의 선봉이 이미 南原을 침범했고 광정 또한 서울에 간 상황에서 신은 巡察使의 從事官 金尙騫과 더불어 여러 고을에 檄書를 보내어 義兵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생각하는 선비로서 모인 사람이 겨우 수백 명이었을 뿐더러, 자기 가족들을 고려하고 염려해서 곧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신이 어쩔 수 없이 배에다 아비·형·아우·처자를 싣고 서해를 따라 서쪽으로 올라갈 계획을 했었는데, 사공이 여의치 못하여 배를 운행하지 못하고 바닷가에서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적의 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¹⁴⁾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강항전」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양자가 약간의 차이만 보일 뿐,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란 때 조선을 침범했던 將帥, 일본의 城邑과 守城技術, 일반 백성들의 생활상과 풍속, 豊臣秀吉 사후 일본의 정세 등이 기록되어 있고, 「적중문견록」에는 일본의 천황 이하의 관직의 명칭과 일본의 지리와 물산 등을 ‘倭國百官圖’와 ‘倭國八道六十六州’란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다루어져 있다. 또한, 「고부인적」에는 조선으로 귀환이 결정된 뒤 대마도에 도착하여 남아 있는 피로인에게 보낸 글이 수록되어 있으며, 「예승정원계사」는 고국에 도착하여 일본승려와 교류한 사실 및 일본의 풍속 등을 소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섭란사적」은 자신의 포로체험을 일기 형식으로 적어 넣은 것인데, 강항의 내면심리가 잘 묘사되어 있다. 그러므로 『간양록』에서 강항의 전기적 사실과 관련된 기록은 「적중봉소」와 「섭란사적」에 집중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기빈, 「수은 강항 연구」, 『민족문화』, 민족문화추진회, 1990; 이채연, 「간양록의 실기문학적 특징」, 『한국문학논총』 13, 한국문화학회, 1992; 이해순, 「수은 강항의 시적 사유와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27, 한국한문학학회, 2001; 김동준, 「수은 강항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8, 한국한시학회, 2003 등 참조.

- 14) 姜沆, 『看羊錄』, 「賊中封疏」 “在上年丁酉, 以分戶曹參判李光庭郎廳, 督運楊總兵糧餉于湖南. 糧餉既集, 而賊鋒已犯南原, 光庭亦向京師. 臣與巡察使從事官金尙騫, 傳檄列邑, 收召義兵, 思漢之士聚者, 僅數百人, 而顧戀家屬, 旋即解散. 臣不得已, 舟載父兄弟妻子, 遵西海以謀西上, 篙卒齟齬, 不能運船, 倘佯海曲, 猝遇賊船.”

그러나 「강항전」이 오로지 「적중봉사」만을 참조한 것은 아니다. 「강항전」에는 「적중봉사」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기록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위 인용문을 예로 들어보면, 강항이 의병을 모으다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데리고 피난을 가면서 李舜臣이 水軍統制使로 새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가려고 했다는 일련의 사실이 「적중봉사」에는 실려 있지 않다. 그러면 안석경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와 같은 강항의 사적을 알 수 있었던 것인가. 이에 대한 실마리는 『간양록』의 또 다른 기록인 「涉亂事迹」에서 찾을 수 있다. 「섭란사적」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18일에 중형 姜沆이 宣傳官으로서 標信을 받들고 新統制 李舜臣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右水營에서 船所로 달려왔다. 20일에 해상의 왜선 천여 척이 이미 우수영에 당도하였으므로, 통제사는 중과부적으로 바다를 따라 서쪽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다. 드디어 一門의 부형과 더불어 향해 갈 곳을 의논하자, 혹은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자고 하고, 혹은 흑산도로 들어가자고 하였다. 나는 중형인 姜洪, 강협과 함께 말하기를, “배 안에 있는 장정이 두 배를 합치면 거의 40여 명에 달하니, 통제사에게 붙어서 싸우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는 것이 설사 성공을 못하더라도 떳떳하게 죽을 수 있겠다.”고 하여, 의논이 결정되었다.¹⁵⁾

위 글은 강항이 1597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자신의 避亂行跡을 기록한 것이다. 이 가운데 20일자 기록을 보면 앞서 「강항전」에 삽입되어 있던 이순신과 관련된 기록의 전말이 서술되어 있다. 강항이 가족들과 함께 해로를 따라 피난을 가던 중에 이순신이 수군통제사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순신에게 귀속하여 전투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15) 姜沆, 『看羊錄』, 「涉亂事迹」 “十八日從兄沆, 以宣傳官奉標信付新統制李舜臣, 自右水營馳至船所. 二十日始聞水路倭千餘艘已到右水營, 統制使以衆寡不敵, 遵海西上. 乃與一門父兄議所向, 或請捨船登陸, 或請入黑山島, 余與從兄洪沆, 言‘舟中壯士合兩船幾四十餘人. 可附統制使. 且戰且退, 不成, 不失明白死.’ 議已克完.”

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강항전」의 “강항은 이에 집으로 돌아가 배에 올라 난리를 피하려고 하다가 李舜臣이 水軍統制使로 새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에게 가서 귀속하려고 하였다.”는 기술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써 안석경이 이를 보고 「강항전」에 기술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안석경은 「강항전」을 『간양록』에 산재해 있던 다양한 기록들을 종합하고, 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재배치함으로써 강항의 사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강항전」에 서술된 강항의 전기를 보면 강항의 전기가 대단히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강항을 주인공으로 한 인물전에서 그의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의아하다. 그리고 「강항전」에는 강항의 내면심리나 그가 일본에서 겪었던 일에 관한 기록이 없는데, 강항의 삶에서 그의 일본체험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 역시 특이한 경우라 하겠다. 더욱이 안석경이 「강항전」을 지으면서 참조한 『간양록』의 「섭란사적」은 강항이 일본에서 체험한 사실과 그가 자아를 발전시켜가는 과정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안석경이 「강항전」에서 이들을 서술하지 않은 것은 그의 숨은 의도가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강항전」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석경이 당시 동아시아 정세를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어진 작품이다. 그래서 「강항전」은 안석경이 『간양록』에 기록되어 있는 일본 정세에 관한 기록들을 현 시점에서 재정리하여 향후 일본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강항전」이 비록 인물전이긴 하나 저술 동기부터가 강항의 전기를 자세히 밝히는 데에 관심의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강항전」에서 강항의 전기는 그가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의 정세를 기록하여 소차를 올리기까지의 경위가 중요할 뿐, 그가 일본에 있으면서 느낀 개인적 감정이나 일화들은 오히려 일본 정세를 객관적으로 탐색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그러므로 안석경은 「강항전」을 지으면서 『간양록』에 수록된 기록들 가운데 강항의 내면심리나

개인적 일화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오직 그의 객관적 행적만을 중심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그의 전기를 꾸미고 있다. 즉 그는 ‘전’이 작가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장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이 살피려 했던 주제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작품을 구성하려고 한 것이다. 요컨대, 「강항전」은 그것이 인물전임에도 불구하고 강항의 전기가 객관적 사적을 중심으로 간략히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작가인 안석경의 작가의식이 반영된 결과로써 「강항전」만의 특징적 면모라고 할 수 있다.

2. 疏筭 挿入을 통한 事實性의 強化

「강항전」에는 두 편의 疏筭가 실려 있다. 하나는 강항이 포로 생활 중에 올린 「적중봉소」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귀국한 후 왕에게 지어올린 「예승정원계사」이다. 이들은 「강항전」에서 전체 분량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절대적이다. 보통의 인물전이 입전인물과 관련된 몇 가지 일화만을 소개하거나 설령 疏筭와 같은 별도의 글을 삽입하더라도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강항전」의 경우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안석경이 「강항전」에 소차를 삽입하고 이를 비중 있게 다룬 데에는 그 나름의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강항전」에 삽입된 疏筭를 중심으로 이에 대해 살펴보자.

(A) 畿內五州

山城, 管八郡. 乙訓府, 葛野, 愛宕, 紀伊, 宇治, 久世, 綴喜, 拾樂 地廣土肥, 種生百倍. 有藥方. 及秀吉所築伏見新京在焉.

太和, 管十五郡. 添上, 添下, 平部, 廣賴, 葛上, 葛下, 忍海, 宇智, 吉野, 宇陞, 城上, 城下, 高市, 十市府, 山邊 地廣土肥. 山繞之, 而土產十倍他州國, 卽倭之南都也, 倭主舊都於此, 名曰和國, 亦曰野馬臺. 梁武帝以倭輕薄如野馬. 故名.

河內, 管十五郡. 錦郡, 石川, 占市, 安福府, 大縣, 高安, 河內, 讚良, 茨田, 交埜, 若江, 澁河, 志紀, 丹北府, 丹南 四方二日餘程. 堤沼池井多, 種生五倍, 市塵多.

(B) 畿內五國

山城, 雍城尋州 上管八郡. 乙訓府, 葛野, 愛宕, 紀伊, 宇治, 久世, 綴喜, 拾樂 拾一作相. 行程南北百有餘里, 朕跡多有藥方, 種生百倍, 味升甘大, 上上國也. 上管之上, 謂土品之上, 大上之上, 謂地方之大, 上上國之上, 亦以土品言之, 下皆倣此. ○王京及賊魁所築伏見新近在.

太和, 和州 大管十五郡. 添上, 添下, 平部, 廣賴, 葛上, 葛下, 忍海, 宇智, 吉野, 宇陀, 城上, 城下, 高市, 十市府, 山邊 南北二百餘里, 山繞而土產十倍他國. 名所舊跡繁大, 上上國也. 倭之南都也, 倭王舊都於此, 名曰和國, 亦曰野馬臺. 野馬臺者, 梁武帝之所命也, 以倭國人道輕薄如野馬, 故以名其都. 倭人至今稱大和曰野馬臺. 有四百八十寺, 極其華麗. 增田衛門正者, 以奉行食三十萬石, 新莊駿河守, 食三萬石, 池田孫四郎, 食二萬石, 土地膏腴, 稻米甚白.

河內, 河州 大管十五郡. 錦郡, 石川, 占市, 安福府, 大縣, 高安, 河內, 讚良, 茨田, 交埜, 若江, 澁河, 志紀, 丹北府, 丹南 四方二日餘程. 堤沼池井多而生五倍, 市廛許多也, 大中國也. 靈龜二年, 割河內大鳥郡, 神護慶雲四年, 停海內島國. 秀吉之諸小將, 分食之.

위의 제시된 두 인용문은 강항이 일본 승려로부터 일본의 地理誌를 얻어보고 이를 「적중봉소」에 전사한 것인데, (A)는 「강항전」의 것이고, (B)는 『간양록』의 「賊中聞見錄」에 있는 기록이다. 양자를 비교해 볼 때,¹⁶⁾ 「강항전」이 『간양록』을 축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간혹 「적중문견록」에는 小註로 다루어 진 것이 「강항전」에 본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도 (A)“及秀吉所築伏見新近在焉.”, (B)“王京及賊魁所築伏見新近在.”와 같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강항전」에 삽입된 소차에는 『간양록』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경우가 빈번히 등장하며, 이는 대체로 일본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서술할 때 사용되고 있다. 안석경은 자신의 입이 아닌 강항의 입을 빌려 자신이 언급하고자 하는 바를 대변케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강항전」에 수록된 일본에 관한 정보는 『간양록』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이 배가 되며,

16) (B)에 진하게 되어있는 부분은 「적중문견록」의 기록 중에서 (A) 「강항전」에 인용된 것을 표시한 것이다.

설령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안석경의 잘못이 아니라 강항에게로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안석경이 이를 면책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리는 만무하다. 오히려 그가 『간양록』의 기록을 지나치게 신뢰한 나머지 문장표현 조차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혹여 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 인용문도 위와 동일한 사례이다. 다만 이 경우는 『간양록』에 지나치게 길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을 안석경이 대폭 산삭하고 중요한 사실만을 간추려 수록한 것이다.

소신이 倭都를 떠나던 날 倭僧인 舜首座가 은밀히 말하길, “家康이 肥前·備前 등과 사이가 벌어져서 조선에 군대를 보내서 兵勢를 소모시키려하니, 조선에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 하였습니다. 또한 醫僧 理安이란 자가 신에게 말하길, “일본이 수백 년동안 사분오열되어 있었습니다. 풍신수길의 잠시 통일을 했었지만 지금은 또한 이미 죽고 없으니, 그 형세가 장차 분산될 모양입니다. 분산이 된다면 내전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외침을 생각하겠습니까? 조선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풍신수길과 같은 자가 나와 통일을 한다면 진실로 우려할 만한 일이겠습니까만, 家康은 넓은 토지와 많은 백성을 끼고 兩都에 의거하여 여러 왜를 호령하고 있으니, 심복하는 자는 비록 적을지라도 겉으로 따르려는 자는 자못 많으니, 우선 범접하지 못하게 하고서 대비하는 것이 진실로 조선의 得策일 것입니다.”라 하였습니다.¹⁷⁾

위 글은 강항이 귀국한 후 임금에게 바친 「詣承政院啓辭」에 관한 안석경의 서술이다. 당시 일본의 정세가 舜首座와 理安이라는 두 인물의

17) 安錫徹, 『雪橋集』上, 「姜沆傳」 “小臣發倭都日, 倭僧舜首座密語曰: ‘家康與肥前備前有隙, 欲送之於朝鮮, 銷其兵勢. 朝鮮可豫爲之備.’ 又醫僧理安謂臣曰: ‘日本數百年來, 裂爲五國. 秀吉暫得統合, 今亦已死, 勢將離析, 離析則內戰之不遑, 何暇於外爭乎. 朝鮮可無憂矣. 若有能統合如秀吉者, 則誠爲可憂. 顧家康擁廣土衆民, 據兩都形勝, 以號令諸倭, 心服者雖少, 貌從者頗多, 姑爲不可犯者以待之, 誠朝鮮之得策也.’”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문제는 『간양록』에 수록되어 있는 기록과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¹⁸⁾ 즉 안석경이 理安의 말인 것처럼 기술한 부분은 실제로 이안과 輝元의 謀主僧인 安國寺의 말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다. 위 글에서 “분산이 된다면 내전도 다 스리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외침을 생각하겠습니까?”란 구절이 바로 안국사가 “數十年來，保無此患，倭輩方爭棧豆，所憂者蕭牆，何暇及他國乎”라고 말한 것을 혼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객관적 사실을 가감 없이 서술하려고 했던 안석경의 서술방식과 모순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안석경이 『간양록』에 길게 서술된 부분을 짧게 축약하기 위해서 사용한 고도의 글쓰기 전략이다. 다시 말해 강항이 「詣承政院啓辭」에서 당시 일본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말을 지루하게 나열한 것을 안석경은 조선의 입장에서 당장 일본의 재침입이 있을 것 이란 주장과 그 반대의 주장으로 나누어 대표적인 두 사람의 입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진술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강항전」의 기록은 그것이 비록 원자료인 『간양록』의 기록을 개작한 것이긴 하지만 그 객관적 사실만큼은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으며 논지의 전개도 오히려 명확해졌다.

18) 姜沆, 『看羊錄』, 「詣承政院啓辭」 “小臣發倭京日，倭僧舜首座招大丘被擄人金景行者，屬臣耳密語曰：‘(上略) 秀吉生時，家康力主寢兵，而今有是議者，必是內府與肥前備前等有隙，置之平地則恐其生變。故欲送此輩於朝鮮，以消其兵勢。今年之內，肥前之和事不成，則根本未定，朝鮮可無患。若成則動兵無疑，當在明年間，朝鮮不可不豫爲之備。(下略)’ 又有醫師理安，自金吾處來言：‘(上略) 日本數百年來，四分五裂，關東爲一國，奧州爲一國，爲國爲一國，四國爲一國，九州爲一國。信長既立，暫時統合，其末年還復離析，秀吉既立，亦暫統合，今其身已死，其勢又將離析，若復離析，則後必有如秀吉者更生，然後朝鮮再受兵禍矣。然世間事朝更夕變，或終始堅凝，亦未可知。家康擁廣土衆民，據兩都形勢，以號令諸倭，心服者雖少，強從者亦多，姑爲不可犯者以待之，乃貴國之得計也。’ (中略) 數十年來，保無此患，倭輩方爭棧豆，所憂者蕭牆，何暇及他國乎云云.” 진하게 되어있는 부분은 「강항전」에 인용된 것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듯 안석경은 「강항전」에서 강항이 지어 올린 소차를 삽입하여 자신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본 정세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강항의 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강항전」 소재 기록의 사실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강항전」에 삽입된 소차가 문장의 표현까지도 『간양록』의 그것을 그대로 차용하거나 축약의 수법을 사용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 ‘述而不作’의 태도라 할 수 있다.

3. 有機的 構成을 통한 主題의 集中化

『간양록』은 작가가 자신이 체험한 경험적 사실을 기술한 實記文學이다. 그래서 『간양록』은 작가가 경험한 사실만을 소재로 채택하며, 그 전개도 작가의 시선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 작품의 시작과 끝이 일정한 구도 없이 작가의 경험적 사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치되고 있다. 더욱이 『간양록』은 별개의 시점에 기록된 글을 훗날 하나의 책을 엮다 보니 동일한 사건이나 사실에 관한 기록이 곳곳에 파편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재와 소재 사이가 유기적인 짜임새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간양록』의 특징으로 비유기적 구성방식이 손꼽히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¹⁹⁾

반면, 「강항전」은 일본 정세의 탐색이라는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저술된 작품이다. 애초에 「강항전」은 일종의 보고문 성격을 지닌 『간양록』과 달리 작가 자신이 밝히고자 하는 핵심적 내용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구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강항전」은 비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간양록』의 기록들을 안석경이 나름의 개작을 통해 유기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안석경은 「강항전」을 저술하면서 일본의 지리, 일본의 관제, 일본의 정치와 풍속,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침입했던 병력의 규모와 장수의 이름, 향후 조선의 대응책, 조선의 현실 등 일본 정세와

19) 이체연, 「간양록의 실기문학적 특징」, 『한국문학논총』 13, 한국문화회, 1992, pp.61-64 참조.

관련된 사실을 『간양록』에서 선별하고 이를 다시 주제별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하여 작품의 유기성을 강화하고 있다.

① 신이 삼가 『倭國官志』를 살펴보건대, 帝王은 곧 倭皇인데, 머리를 자르지 않고, 당에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매달 보름 이전에는 채소를 먹고, 보름 이후에는 고기를 먹습니다.

② 太古에 이른바 葺不合尊者란 자 이래로부터 서로 전하여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4백 년 전까지도 그 威福을 잃지 않았고, 대신 한 사람을 선택하여 나라 정사를 총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명령을 받들어 행할 뿐이었는데, 源賴朝가 섭정한 이후부터 倭皇은 제사만을 주관할 뿐, 號令이 王城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²⁰⁾

위 글은 안석경이 「강향전」에서 倭皇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다. 이 글 역시 『간양록』의 기록을 차용한 것인데, 『간양록』에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기록을 찾아보면 ①과 ②의 출처가 다르다. ①은 「적중문건록」에 나오는 “倭國百官圖. 帝王即倭皇帝也, 不翦髮不下堂. 望前素食, 望後鮮食.”을 차용한 것이고, ②는 「적중봉소」의 “在上世, 有葺不合尊者, 號爲天神, 以一劍一璽一鏡, 降於日向州, 仍都日向. 後遷都太和, 又遷于長門州之豐浦, 又遷都于山城州, 今之倭京也. 自開闢以來, 一姓相傳, 到今不易. 臣得見其國史編年, 及所謂吾妻鏡者, 則四百年前所謂倭天皇者, 猶不失其威福, 自前世擇大臣一人, 摠攝國政, 大納言大政大臣大將軍關白等官爲之, 然猶奉行其天皇之命而已, 其天皇或稱天尊. 自關東將軍源賴朝以後, 政委關白, 祭則天皇.”이란 부분을 축약해서 기술한 것이다. ①이 현재 倭皇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이라면, ②는 현재까지 倭皇이란 지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20) 安錫徽, 『雪橋集』上, 「姜沆傳」 “臣謹按倭國官志, 帝王, 即倭皇也. 不翦髮不下堂. 每月望前素食, 望後肉食. 自太古所謂葺不合尊者以來, 相傳, 至今不易. 四百年前, 不失其威福之權, 擇大臣一人, 摠攝國政, 而主令猶行. 自源賴朝攝政以後, 倭皇者, 主祭而已, 號令不能出王城.”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상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연원과 변천과정 등 제반 사항을 알아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일본의 관제, 즉 倭皇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보려면 ②의 내용이 함께 수반되어야 효과적이다. 따라서 안석경은 「적중문견록」에서 일본 관제에 관한 기록을 차용하면서 그와 관련된 「적중봉소」의 기록을 축약해서 함께 서술함으로써 자신이 밝히려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수백 년 전의 왜국 법령은 대개 중국이나 우리나라와 다름이 없어서, 凡民이 私田을 가지고 있고, 귀인의 집에는 私奴를 두었으며, 수령들의 경질, 科擧를 보아 인재 뽑는 것 등 대개 수 천리의 한 樂國이었습니다. 그런데 關東將軍 源賴朝가 전쟁을 일으킨 이래로는 마침내 하나의 戰國을 이루었습니다.

㉡ 전투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곧 토지로 상을 주기 때문에 왜장 중에는 食邑이 혹은 8~9州에 걸쳐 있는 사람도 있고, 혹은 두어 주에 걸쳐 있는 사람도 있으며, 한 주를 독차지하거나 두어 城을 독차지한 경우도 있고 한 성만을 독차지하기도 합니다. 가장 적은 사람도 오히려 鄉里를 분할하여 가지고 있습니다.²¹⁾

「강향진」에서 일본의 國俗에 대해 서술한 부분이다. ㉠은 「적중문견록」의 기록을, ㉡은 「적중봉소」의 것을 차용하였다.²²⁾ 그러나 위의 ㉠과 ㉡은 앞의 경우처럼 서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 ㉠은 일본 법령의 유래를 밝힌 것이고, ㉡은 전공을 세운 사람에게 봉토를 나눠

21) 安錫傲, 『靑橋集』上, 「姜沆傳」 “數百年前倭國法令, 概與天朝及我國不甚異. 凡民有私田, 顯家有私隸, 守宰更遞, 科目以取材, 蓋數千里一樂國也. 自關東將軍源賴朝爭戰以來, 遂成一戰國. 戰而有功者, 卽以土地行賞. 故將倭食邑有連八九州, 有連數州, 有專一州, 有專數城, 有專一城. 最末者, 猶得分取鄉里.”

22) 姜沆, 『看羊錄』, 「賊中聞見錄」 “數百年前倭國法令, 概與天朝及我國無異. 貴家之有私奴, 凡民之有私田, 守宰之更遞, 科目之取材, 大略相同. 蓋數千里一樂國也, 而自關東將軍賴朝爭戰以來, 遂成一戰國.”; 姜沆, 『看羊錄』, 「賊中封疏」, “戰有功者, 卽以土地行賞, 食邑或有巨八九州, 或巨數州, 其次專一州, 又其次專數城, 又其次專一城. 最小者分割鄉井.”

주는 풍속에 관한 것이므로, ㉠과 ㉡ 중에 어느 한 기록이 없더라도 나머지 기록이 독립적 기록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다. 인용문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이 계속 「적중봉소」의 기록인 바, 글의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이 의도적으로 삽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서술의 유기적 안배를 고려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는 아니다. 오히려 이는 안석경이 「강향전」이란 작품 속에 방대한 양의 지식정보를 주제별로 수록하려고 했음을 반증하는 자료이다. ㉠과 ㉡이 표면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이면에는 일본의 國俗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안석경은 일본에 대한 조선의 대응책을 기술하면서 『간양록』에 별도로 수록된 4가지 기록을 종합하여 그가 살던 시대에 가장 합당한 계책을 도출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서로가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지는 않다. 또한 안석경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 사실을 서술할 때 『간양록』의 기록을 그대로 차용하여 기록의 사실성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과 ㉡도 일본 국속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것이 매끄럽게 연결되지는 않으나 의미 전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가능한 개작을 배제하려 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동일한 주제의 기록을 종합·정리하고자 했던 안석경의 작가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요컨대, 안석경의 「강향전」은 『간양록』에 수록된 다양한 내용을 해체하고, 이를 다시 유기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주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IV. 結論

지금까지 본고는 「강향전」의 저술동기와 서술상의 여러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강향전」은 안석경이 강항의 『간양록』을 읽고, 이를 생략, 통합, 재정리하여 ‘傳’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는 안석경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의 독서 체험이 어우러져 탄생한 결과물로, 그 속

에는 시대적 위기위식에 대응하려는 조선후기 지식인으로써의 고뇌가 투영되어 있다. 「강항전」이 여느 인물전과는 달리 일본의 정세를 밝히는 데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도 이러한 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래서 그는 『간양록』의 기록을 가공하여 강항의 전기를 간략히 기술한 뒤에, 소차의 형식을 빌려 일본 정세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주제별로 묶어 집중적으로 기록하였던 것이다.

안석경은 歷史와 經世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던 인물이다. 그가 평생 華夷論에 입각해서 북벌론을 전개하면서 당대 조선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나 청나라와 미얀마의 전투에 기민하게 반응했던 일련의 사실들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²³⁾ 뿐만 아니라 그는 동시대에 다양한 인간군상에 대해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며 기록으로 남겼다. 따라서 「강항전」은 그것이 비록 ‘전’이란 장르적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문예성을 질게 내포한 작품이라기보다 ‘일본 바로알기’를 통해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조선이 대응해야 할 방안을 모색한 실천문학으로써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參考 文獻>

姜沆, 『看羊錄』, 국립중앙도서관.
安錫傲, 『雪橋集』, 아세아문화사.

국역 『해행총서』, 민족문화추진회.
陳必祥 著·沈慶昊 譯, 『한문문제론』, 이회, 1995.
구지현, 『계미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보고서, 2006.
김기빈, 「수은 강항 연구」, 『민족문화』, 민족문화추진회, 1990.

23) 윤지훈, 「삼교 안석경의 인물론과 북벌에 대한 인식」, 『한문교육연구』 27,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18세기 필기의 일양상 고찰」, 『동방한문학』 32, 동방한문학회, 2007. 참조.

- 김동준, 「수은 강항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8, 한국한시학회, 2003.
- 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 신로사, 「元重擧의 『和國志』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윤지훈, 「삼교 안석경의 인물론과 북벌에 대한 인식」, 『한문교육연구』 27,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 , 「18세기 필기의 일양상 고찰」, 『동방한문학』 32, 동방한문학회, 2007.
- 이채연, 「간양록의 실기문학적 특징」, 『한국문학논총』 13, 한국문학회, 1992.
- 이혜순, 「수은 강항의 시적 사유와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27, 한국한문학회, 2001.
- 임형택, 「姜睡隱과 그의 著作」, 『坡山及門諸賢集』, 아세아문화사, 1982.
- 하우봉, 「17세기 지식인의 일본관」, 『동아연구』 17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9.
- ,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혜안, 2006.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Abstract

*Sapgyo An Seok-gyeong's understanding of Japan and
「Ganghangjeon(姜沆傳)」 / Yoon Ji Hum**

This study is to aim for look into a distinctive feature and writing's background of 「Ganghangjeon(姜沆傳)」 by An Seok-kyeong. After reading 『Ganyanglok(看羊錄)』, he omitted, united, rearranged, and then reconstructed it for 'Jeon(傳)'. That is 「Ganghangjeon(姜沆傳)」, the product from mixing his negative cognition against Japan with his experiences of reading. Also, it is watched that he reflected on concern about coping with the critical consciousness of the times as an intellectual in the later Joseon. Its framework is in focus on clearing up the Japanese situation unlike some other biography. By borrowing a form of Socha(疏筭), he tied the objective facts of the Japanese situation into the subject matters and recorded it intensively after re-constructing records of 『Ganyanglok(看羊錄)』 and describing a biography of Ganghang(姜沆) concisely. In consequence, it can be estimated that though 「Ganghangjeon(姜沆傳)」 takes a genre of Jeon(傳), it would rather have significance as practical literature grouping after the way for Joseon to cope with Japan in the rapidly changing East Asian situation, than a work involved with literary or artistic merit.

【Key words】 An Seok-kyeong, 「Ganghangjeon(姜沆傳)」, 『Ganyanglok(看羊錄)』, understanding of Japan, a structural of description

투고일 : 11월 7일, 심사일 : 11월 19일, 게재확정일 : 12월 2일

* Lecturer of Chosun University / singlesw@skku.edu